

누가 그들을 죽였을까?

경인단열¹⁾ 딸 전혜미

우리 아빠는 경인단열 사장님이었고, 우리 엄마는 경인단열 회장님 혹은 비선실세였다. 아빠는 딸만 대학 졸업하면 사업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농경이나 키우면서 살고 싶다고 했다. 가게에 애착 많은 엄마는 늙어도 아이고아이고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게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사장²⁾, 어디 갔어?” 라고 아빠가 없을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봤고, 엄마는 항상 외근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묻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틈만 나면 전국 방방곡곡 낚시하러 다니는 사장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2018년 8월 6일, 아빠의 동공이 풀렸다. 이후 연쇄 작용을 일으키다가 2018년 10월 12일에 종결되었다. 아빠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허망함으로 다가왔다. 아빠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은 사장님이 장난기가 많고 웃음도 많았다고 한결같이 묘사했다. 곧이어 사람들은 엇그제만 해도 사장님이 오셔서 커피를 얻어 마시고 가셨다고 아버지의 죽음을 의아스러워했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가게에서 주로 취급하는 단열재와 같은 건설 자재는 주로 월말에 주문받아서 월초에 건설 현장으로 배송된다. 엄마가 월초인 2019년 2월 6일 까지 일해서 그런지 거래처 사람들은 엄마의 죽음을 자꾸 되물어봤다. 우리 아빠는 장사꾼이었으나, 우리 엄마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엄마는 거래처 사장님이 제때 물건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도록 책임지는 조력자였다. 우리 엄마는 줄 돈은 제때 주고, 받을 돈은 좀 천천히 받는 실속 있는 사장님이었다. 높은 신용도 탓에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경인단열 여직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필자에겐 엄마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지만, 다들 그 여직원도 없나면서 도로 묻는다. 우리 엄마의 죽음은 여태껏 인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2019년 2월 11일에 절명했다.³⁾

2019년 4월 4일이 되어서야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까닭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 영원히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었다. 그들의 죽음 앞에서 나는 무기력해졌고 죽음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웠다.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필자는 침묵 끝에 누가 그들을 죽였는지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그들의 몸 상태에 대한 의사의 권위에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안양유통상가⁴⁾라는 공간이 그들에게 어떤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게 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그들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지녔는지 곱씹을 계획이다.

의사는 최초로 그들의 몸과 죽음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 사람이다. 평촌 한림대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빠를 보고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온 환자가 제일 문제이고, 환자 몸 상태를 가족들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아빠의 몸 상태에 대한 최후의 변명이 필요해졌다. 먼저, 의사 선생님의 말씀엔 어폐가 있다. 우리 아빠는 자신

- 1) ‘경인단열’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2019년 2월 6일 경으로 영업을 종료하였다. 현재 ‘경인단열’이 있던 국제유통상가 3동 121호는 비어있고 사업자등록증만 살아 있는 상태이다.
- 2) 보통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장과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성(姓)+사장’이라고 친근하게 부른다.
- 3) 공자는 상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고, 제례는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효자인 필자는 어머니의 평소 신념처럼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는데, 이것이 한몫했던 것 같다.
- 4) 공식 명칭은 ‘안양국제유통단지’이지만 필자에게는 ‘유통상가’가 더 익숙한 관계로, ‘유통상가’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참고로 필자는 유통상가에서 18년 동안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이를 본 적이 없다.

의 몸이 나빠졌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본인의 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로, 가족들도 아빠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우리 아빠는 술과 담배를 20년 넘게 해온 사람이다. 공익광고협회가 금연의 필요성을 수십 년 동안 광고해준 결과, 우리는 흡연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알고 있었다. 아니, 사실 아빠가 아직도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는 간과 폐가 남았다는 사실에 의아해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병은 최종적으로 뇌에서 발병했다. 자발성 뇌실뇌출혈은 확실히 우리의 예상 밖의 문제였다.

반대로 어머니의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의사의 진단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는 어머니의 질병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달거리를 하지도 않는데 피가 계속 나오는 질병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에 대해서 의사는 무관심했다. 의사가 말하는 ‘자궁 내 출혈’ 이 환자의 입장에서 ‘끝없는 피의 행진’ 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사의 진단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고, 우리가 잊어온 자연에 대한 신호였기 때문에 위협적이었다.

의사가 제기한 그들의 몸과 죽음 간의 관계는 빈약하다. 따라서 필자는 유통상가라는 공간과 사장님의 죽음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먼저, 유통상가라는 공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유통상가의 빈틈없이 지어진 사각형의 건물들은 오고가는 차로 하여금 턴을 할 때 ‘깍’ 소리가 나는 드리프트를 하지 않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유통상가에서는 하루 종일 ‘깍깍’ 거리는 소리와 바퀴가 도로에 겹쳐 자국 남기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 또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공간조차 없을 만큼 효율성 있게 설계된 유통상가는 가게마다 지닌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늦췄다. 유통상가는 차 소리 뿐만 아니라 가게마다 내뿜는 소음과 먼지, 이름 모를 냄새에 휩싸여 있다.

앞서 제시한 유통상가라는 공간의 특성을 기반으로 죽음에 관해 들여다볼 수 있다. 유통상가라는 공간은 개인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저항적이게 되도록 종용했다. 끝없는 소음 공해와 유해한 냄새, 그리고 좁은 공간은 추상적인 관념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한다. 사장님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부여받는데, 그것이 곧 사장님의 모든 세상을 대체한다. 사장님들은 그 작은 공간에 앉아서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지는데⁵⁾, 기다림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무감각해짐을 뜻한다. 시간이 흐르면 사장님의 몸은 늙는다. 그런데 유통상가에서는 옆 가게 사장이 늙으면 주변 사람들이 사장도 모르게 도와준다. 몸의 늙음마저도 망각되면 사장님에겐 시간이라는 관념이 들어설 곳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시간이 사라지면 시작과 끝도 모호해진다. 사장님은 오늘이 끝인지, 내일이 끝인지, 모레가 끝인지 알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유통상가에서 시간의 관념이 사라져 더 이상 늙지 않는다는 것을 홀로 남은 여주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아무도 내일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선 시간이 매섭게 흘러서 점점 더 많은 가게를 부인이 혼자 운영하고, 점점 더 많은 옆 가게 아는 사장님들은 아침 출근길에 나오지 못했다. 사장님은 남성들만의 끈끈한 의리로 사업이 굴러가기 때문에 여주인이 혼자 나와서 일하는 가게를 보고 곧 망한다고

5) 우리의 노동 시간이 길다. 처음 토요일휴업제가 시행되었을 때, 유통상가 사장님들은 모두 제도를 비웃었다. 이후 몇 년간은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기 위해 옆 가게 사장님의 승인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가게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가게가 많았고,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사장이 장사하기 싫다는 뜻이거나 곧 망할 가게라는 징조를 의미하거나 혹은 돈 많은 한량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여겼다. 그래서 쉬기 전에 반드시 쉬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쉬었다고 미리 해명해야 했다.

쑥덕거린다. 사장님은 말과는 다르게 여주인 혼자 일하는 가겟집에 자주 들러서 이것저것 해준다. 모든 일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일을 비밀에 부친다. 필자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몰랐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같이 자신이 어머니를 더 많이 도와야 했다고 자책하는 전화를 받아서 배웠다. 필자가 수를 헤아려본 결과 우리 어머니는 적어도 20명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마저 죽은 다음에도 필자는 이 세계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유통상가의 특성을 토대로 의사가 제기한 몸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진술해야 한다.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점을 제외하더라도 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왜 아버지를 그대로 두었는지에 관해 추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죽을 수 있는 환경에 너무나 익숙해졌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유통상가라는 유해한 환경으로 완전히 스며들었다. 유통상가의 유해한 환경이란 물리적인 위험 요소⁶⁾만을 뜻하지 않는다. 계속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공간적 배치가 만든 시간 감각으로 이루어진다. 정리하자면, 유통상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가능성을 완전히 은폐하도록 매몰시켰다.

그러나 유통상가에는 죽음과 대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유통상가 내의 사람들은 그만의 독자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냈는데, 사장님은 ‘가라’⁷⁾로 유통상가를 움직인다. 유통상가는 누가 봐도 유해한 환경이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옆 가게에 따지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자본주의의 발현을 뜻하진 않는다. 공간의 목적성과 다르게 유통상가 내의 사장님은 자신도 옆 가게에 유해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도덕성을 발휘시킨다. 이러한 사장님의 도덕성은 가게로 찾아온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예컨대 사장님은 돈 없는 대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특히 약한데,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을 사러 온다고 통명스럽게 굴지만 값싸게 물건을 내어준다. 잘만 하면 사장님이 공짜로 배달까지 해준다.

사장님이 가라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장님이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유통상가는 자본주의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공간이지만, 그 공간 위에서 움직이는 사장님은 비규범성을 버리지 못했다. 설계 의도대로 사장님은 인간이 있을 공간을 최소화하고 물건을 더 많이 배치하여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법에 복종한다. 사장님은 사무실을 기점으로 철제선반 앵글을 조립하고 그 위에 나무판자를 올려서 제품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사장님은 정신없이 만들다가 그만 가게

6) 확실히 유통상가는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도로는 용접 불꽃이 쏟아지는데, 사실 용접 불꽃이 쏟아져 내리는 가게는 유통상가의 위험이 아니다.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공업용 페인트와 잉크, 중금속, 마스크를 끼지 않는 분위기는 용접 불꽃보다 더 신변을 위태롭게 한다.

7) ‘가라’는 온갖 사정들을 살피기 좋아하는 사장님의 메커니즘이다. 이것은 유통상가 내에서 일을 처리하고 나서 드는 기분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유통상가에 처음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은 유통상가가 수천 개의 가게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이 갈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헤맬 것이다. 똑같이 생긴 지형 탓에 같은 곳을 맴돌다가 결국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자신이 찾는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물을 것이다. 가게 주인은 길을 잃었다는 것을 눈치 챘지만,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두꺼운 전화번호부에서 찾아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가 사실 자신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실토할 것이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당사자가 원하는 제품을 들고는 그것을 취급하는 옆 가게를 소개해 줄 것이다. 그 옆 가게에서 운 좋게 살 수도 있으나, 아니면 그 옆 가게에서 소개시켜주는 또 다른 옆 가게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옆 가게/옆옆 가게에서 물건을 산 사람은 유통상가를 나오면서 참 이사한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은 물건을 성공적으로 샀으나, 자신이 원하거나 예상했던 방법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가라’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한다.

간의 경계선도 넘고 인도도 침범하여 앵글과 나무판자의 무제한적인 확장을 추구한다. 관리 사무소에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경비원은 사장님에게 인도를 침범한 심리적 배경을 추궁하고, 이후의 안전 대책에 대해 따지고, 침범의 위험성을 자백하게 하고, 책망하여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경비원은 유통상가자체규약에 따라 벌금을 물리면서도 선반을 만들고 남은 앵글은 좀 없는지 묻는다. 이렇게 어떤 규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규칙은 우습게 여긴다는 것을 볼 때, 사장님은 자본주의와 유통상가라는 환경에서 유발되는 자극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사장님은 죽음을 결코 언급하지 않는 규칙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사장님의 사고방식에서 죽음을 은폐할 가능성과 폭로될 가능성은 양단되어 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일으켰다. 유통상가는 죽음의 무의미함을 지속적으로 주입했다. 유통상가는 이전 사람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 옆 가게 사정에 밝은 사장님은 여러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사장님은 가까운 이와 먼 이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면서도 현실에 충실해야만 했다. 그래서 사장님은 시간에 무던해져야만 했다. 인간의 끝에 대한 처절한 경험이 자신을 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떤 장벽이 필요했다. 사장님은 계속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늙어가는 것마저도 잊어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불길한 결말을 수용했다.

반면에 죽음을 은폐하는 외부의 명령 체계는 사장님에 의해서 와해될 수 있다. 사장님은 독자적인 시간 관념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공포를 빠져 나오지만 그것을 벗어난 순간 타인의 죽음 이야기라는 다른 이름의 공포에 노출된다. 사장님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죽음의 공포에 대한 저항력을 지혜와 민담을 통해서 홀로 키웠다. 유통상가엔 가볍게 병원에 갔다가 영영 나오지 못한 사장님이 많다. 남은 사장님들은 절대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어서 이것이 유통상가의 지혜처럼 남게 되었다. 유학 간 딸이 현지에서 결혼해서 고독사한 사장 이야기의 교훈은 가족은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는 민담으로 남았다. 이렇게 외부 사람이 보기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러한 저항력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사장님이 어떤 상태의 마지막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죽음을 은폐하게 하고 계속 일하도록 장려하는지를 파악하면 된다.

모든 것은 연속선상에 있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말았다. 적어도 필자는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미세한 원인들이 모여서 결국 죽음으로 끝났다. 필자는 병원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는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어머니가 갑자기 느낀 죽음의 공포로부터 어머니를 구원하지도 못했다. 건강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는 굳은 의지로 의사를 찾아가 종합 검진을 받았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사실 유해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유통상가는 애당초부터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사회는 이것에 대해서 침묵했고, 사장님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유통상가의 유해한 환경은 결국 우리 부모님의 죽음을 탄생시켰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니, 안심하라.”